**이름**: 김현욱 **학번**: 21800201 **분반**: 02분반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 부반장 선거에 나가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남들 앞에서 진행하며 주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되다보니 고등학교에 들어서 저의 꿈과 공부가 모두 제 자신이 아닌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맞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눈에 보이는 목표만 신경을 썼고 한동에 오기 전까지 ‘수능’이라는 시험을 앞에 두고 저의 자존심과 남들의 시선을 내려놓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태 신앙이기는 했지만 지금에서야 저의 주님을 만났고 한동이라는 큰 선물과 그 안에서 저의 꿈과 소명을 찾아가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저의 신앙을 막았던 질문은 “너는 기독교인인데 다 잘되겠다” 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때 제 주변 친구들 중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고 그러다 문득 종교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저는 당당하게 저의 의견을 얘기를 했지만 막상 돌아서서 생각해보니 잘되기는 커녕 하고 있는 공부도 제가 생각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나고 의심만 품고 있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 하나만을 위해 주변 인간관계를 다 포기했었던 의지 때문인지 막상 공부해도 잘 되지 않는 제 모습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고 사실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몸만 왔다갔다하고 하나님과 저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도 않고 기도도 거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기도는 온전히 저의 미래에 관한 기도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가득 했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정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시작된 종교에 대한 의문은 제가 재수를 하고 한동대로 이끌리고 또 군대에서 자격증을 공부할 때까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역을 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가족과 온전히 집에서만 보내는 시간을 6개월 가졌는데, 형과 둘이서 같은 방을 쓰면서 그 안에서 책을 읽고 목사님 설교도 찾아듣고 말씀도 정말 혼자 묵상도 많이 하면서 비로소 제가 했던 기도의 방향과 마음의 중심과 저의 욕심, 돈 명예에 관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정말 무엇인지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떠나려고 했던 시기는 군생활 할 때 입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기도를 잘 드리지 않았고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았는 데도 나름 삶이 재밌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계속 생겨서 내가 과연 기독교인인가 의문이 들기도 했고, 남들이 제가 한동대를 다닌다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지금 여기에도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냐 등의 수 많은 질문을 받았고 그것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웃으면서 넘어가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도 안말하고 제 종교도 말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싶지만 그것에 변증할 수 있는 증거와 말을 하기에 성경 내용이 제 머릿속에 없었고 사실 마음 속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 과정이 없었으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더 많이 흔들리고 이런 질문을 충분히 했지 않았을 까라는 생각을 하며 모든 순간과 제게 일어난 일에 감사함을 기도드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많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뿌리도 깊이 내려앉는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